

다쏘시스템, 업계 최초 클라우드 기반 항공기 설계 솔루션 공급

- 프랑스 항공 벤처기업 엘릭서 에어크래프트, 다쏘시스템의 항공산업 특화 솔루션 '엔지니어드 투 플라이(Engineered to Fly)' 도입
- 투자비용 낮고 사용이 쉬운 클라우드 설계 솔루션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

서울, 2015년 7월 30일 - 3D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다쏘시스템(www.3ds.com/ko)이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3D 항공기 설계를 위해 자사 솔루션인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공급한다.

프랑스 항공 벤처기업인 [엘릭서 에어크래프트\(Elixir Aircraft\)](#) 사는 자사가 개발중인 2인승 비행기의 클라우드 기반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위해 다쏘시스템의 항공우주 및 국방 분야 산업특화 솔루션인 '엔지니어드 투 플라이(Engineered to Fly)'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. 이 항공기는 독특한 날개구조로 수준 높은 탑승자 경험을 제공하며 유료하중 및 안전성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성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. 첫 비행은 2016년 중순으로 예정되었다.

다쏘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'엔지니어드 투 플라이'는 항공 및 국방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된다. 엘릭서 에어크래프트는 항공기 설계 및 문서화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최신 엔지니어링 기술을 포함하는 다쏘시스템의 유연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. 이를 통해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과도 안전한 인터넷 소셜 환경에서 협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,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상의 운영 주기 및 변경 빈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. 무엇보다 뛰어난 IT 지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행되는 만큼 최소한의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가속화 할 수 있다.

엘릭서 에어크래프트 CEO 인 아서 레오폴드-레제(Arthur Leopold-Leger)는 "중소기업들에게 관리 시스템 구축 문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다. 때로는 중요한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방해요소가 되기도 한다"면서 "다쏘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은 실시간 공유 및 쉬운 사용법, 데이터 보안, 전체 기술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하여,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자원을 설계 및 엔지니어링에 집중 투자할 수 있었다"고 말했다.

다쏘시스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부사장인 미셸 텔리에(Michel Tellier) 는 "엘릭서 에어크래프트는 이번 프로젝트로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벤처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"라며 "항공기의 전 설계과정이 클라우드 상에서 진행될 정도로 클라우드는 이제 중요한 엔지니어링 툴이다. 업계에서 가장 큰 다쏘시스템의 클라우드 포트폴리오는 비용 효율적인 혁신 방안이 필요한 벤처 및 중소기업들에게 최고의 보안, IP 무결성 및 접근성, 안정성, 확장성을 제공한다"고 말했다.

다쏘시스템의 항공우주 및 국방 분야 산업특화 솔루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<http://www.3ds.com/industries/aerospace-defense> 에서 확인 가능하다.

###

다쏘시스템에 대하여

3D 익스피리언스 회사인 다쏘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세계를 비즈니스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. 전세계를 선도하는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은 제품의 디자인, 생산 및 서비스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. 다쏘시스템의 협업 솔루션은 현실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세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, 사회적 혁신을 촉진한다. 다쏘시스템은 140 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계의 190,000 이상의 고객사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.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<http://www.3ds.com>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[보도자료 문의 연락처]

다쏘시스템코리아

최명주 부장

Myoungjoo.CHOI@3ds.com

민커뮤니케이션

정민아 실장 / 박경동 차장 / 최서윤 A.E

TEL. 010-9068-8180, 02-3495-7823

pr1@mincomm.com